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 연구

이 유 리*

차 례

- | | |
|-------------------------------|----------------------|
| 1. 서론 | 1) 방관주·영혜빙과 유랑 |
| 2. <방한림전> 속 소수자들 | 2) 방관주와 영혜빙 |
| 1) 전복(顛覆)의 소수자 | 3) 방 씨 일가와 낙성 |
| 2) 잠재(潛在)적 소수자 | 4. <방한림전> 소수자 가족의 의미 |
| 3.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의 형
성과 성장 |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소수자’와 ‘가족’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입각하여 <방한림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적극적 소수자의 길을 걷는 방관주·영혜빙 부부는 물론, 잠재적 소수자로서의 입양아 낙성과 유모 유랑까지도 주목한 것이다. 결국 이 네 사람 모두가 소수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또한, <방한림전>의 공동체는 다분히 가족의 성격을 띤다. 그들 소수자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점차 안정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사회제도적 한계마저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으로부터 미래지향적

* 영남대학교

인 새로운 가족의 유형을 발견하고,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한 오늘날에 더욱 특별해진 이들 소수자 가족의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나름의 성과로는, 기존에 방관주와 영혜빙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유모와 낙성의 소수자적 면모까지도 논의선상에 올려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유랑은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으로서 기존의 통념에 의하면 전형적인 가족의 구성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사료(史料)를 통해 유모 유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열고 그를 ‘가족’의 담론 안으로 끌어 올 수 있었다. 낙성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부수적 인물로 평가받는데 그쳤지만 본고는 그 또한 주요한 소수자 가족의 일원으로 보고 유의미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스스로가 이미 동성혼 부부에게서 입양된 자녀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는 점과 후사 잇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비정상적 정상화’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이었던 점이 특기할 만하다. 아울러, 기존에 여성의식이나 가부장제의 관점으로 접근할 때 구명이 쉽지 않았던 ‘가문 존속의 문제’를 소수자 집단의 한계 초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한 점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주제어 : 소수자, 소수자 가족, 연대, 동성혼, 젠더 위반, 미래형 가족

1. 서론

<방한립전>은 조선 후기 한 동성결연 가족에 대한 이야기다. 이 작품은 오늘날에도 용인이 쉽지 않은 동성혼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문제작으로, 최근의 다원주의적 분위기와 맞물려 학계의 뜨거운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다.¹⁾

본고는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의 유의미한 조명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방관주와 영혜빙의 결연을 동성애에 의한 성소수자의 그것으로 보고 파격적 흥미소 혹은 사회적 약자의 관점에서 구명하려는 논의들이 생겨나는 추세다. 고전문학의 소수자적 접근을 시도한 김경미(2006)²⁾의 개괄적 논의가 있지만 그것도 <방한림전>과 같은 개별 작품에 대한 적용 연구는 아니다. 정병헌(2007)의 경우, <방한림전> 속 숨김과 지속의 문제를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제도화된 타자에 대한 배려”로 보고 작품의 비극성을 “주류계층에서 소외된 집단의 행동방식과 관련지어 설명”³⁾하고자 하였다. 위 논의도 인물들의 소수자적 면모에 주목했다는 점과 소수자의 자아실현의 방식을 숨김과 지속이라는 적절한 틀로 설명해냈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로 보이나 그 소수자적 성향을 두 주인공 방관주와 영혜빙에게서만 찾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소수자’의 관점에 있어서는 낙성과 유모도 결코 타자로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부나 신분 같이 표면적인 잣대로만 평가하면 방관주와 영혜빙이 오히려 다수자로 인식될 여지도 있다. 사실상 낙성과 유모는 각각 입양아와 하층신분으로 표상되는 사회적 소수자로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들이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소수자’와 ‘가족’의 조합에 착안하여 <방한림전>이 그려내는 소수자 가족 공동체

- 1) 기존의 <방한림전> 연구는 크게 ‘여성영웅소설’과 ‘페미니즘’의 두 시각으로 나눠볼 수 있다. 여성인 방관주가 부모를 여의고 본격적으로 남장을 하게 되면서 입신양명을 하고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여성영웅소설류로 분류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또, 남장과 동성결연을 통해 사회적 이념과 제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방관주와 그의 동성 아내 영혜빙의 자아실현 양상에 주목하는 여성주의적 관점의 연구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이 여성영웅소설,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담론만을 반추하려는 경향이 있어 보다 새롭고 다양한 해석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47-68쪽.
- 3) 정병헌,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他者)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73-399쪽.

의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기로 한다. 지금까지는 <방한립전>의 네 인물 모두를 소수자로 보거나 이들의 연대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해석하려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여기에 가장 큰 본고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소수자의 정의에 대해 본고는 윤수중, 김경미, 김진영의 논의에 주목한다. 여기에 입각해 간략히 정리해보면, 전근대 사회의 소수자란 여러 가지 제도나 관습적 제약에 의해 차별받았거나 기질이나 신념에 의한 차별화된 인생을 살았던 이들을 말한다. 특히, 여성 소수자의 위계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 여성의 대다수가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일 수 있다.⁴⁾ 따라서, <방한립전>의 네 인물들이 모두 소수자의 틀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는 바, 그들이 만들어낸 소수자 가족에 대한 의미

4) 윤수중에 따르면 “소수자는 표준화된 인간상으로부터의 거리에 의해 규정”된다. 또한 그는 오늘날이 ‘소수자의 시대’임을 내세워 “어떠한 지배체제 하에서 예측 불가능하고 유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이 결국 소수자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 윤수중 편,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학사, 2002, 11-13쪽. 김경미는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그는 조선 시대의 표준적인 인간상인 ‘남성-양반-어른-유교-한문을 쓰는 사람’의 대응 개념으로 소수자를 규정하였는데 ‘여성-중인·서얼·천민-어린이-도교나 불교-언문을 쓰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그는 다시 여성 집단 내부를 양반여성, 서녀, 평민여성, 기녀, 여종 등으로 위계화 하여 각각의 입장에서 그 소수자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사적인 영역을 벗어날 수 없다는 공간 및 활동 범위의 제한, 한문이 아닌 언문의 사용이라는 언어 사용상의 제한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그 숫자가 어떠할지라도 여성은 권력으로부터 배제된 소수자”로 본 것이다. -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50-51쪽. 한편, 김진영은 조선 후기 사회의 소수자의 삶과 형상에 주목한다. 그는 천민이나 여성같이 전근대 사회에서의 제도나 관습에 의해 차별받았던 사람들은 물론, 제도적·관습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외인 그룹처럼 자신의 기질과 신념에 의해 차별화된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을 모두 소수자의 경계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주로 신분 차대와 성 차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게서 소수자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찾는다. - 김진영 외, 『조선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 도서출판 보고사, 2007.

구멍에까지 논의를 확장시켜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본고는 적극적 소수자 동성혼 부부 방관주와 영혜빙은 물론, 잠재적 소수자 입양아 낙성과 하층 신분인 유모 유랑까지 네 사람 모두가 결국 소수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들이 하나의 소수자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개개의 전복적 혹은 잠재적 소수자로서의 특성들 또한 점차 어우러지고 변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 선행하여 <방한림전> 인물들의 소수자적 성향을 큰 틀에서 분류할 필요가 있다. 방관주와 영혜빙은, 그 자아실현 양상은 다르지만 그들 모두가 자신의 능력과 재주에 맞지 않는, 관습화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적극적인 소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유모와 낙성의 경우, 그들의 자발적 의사와는 상관없이 소수자의 삶을 살게 되었고 그들의 소수자적 면모가 작품 속에서 세세히 드러나지는 않으나 다분히 잠재적 발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방 씨 부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자칫 작품 전체의 소수자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으므로, 그 전복성(顛覆性)의 유무로 나누어 소수자 유형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늘날의 ‘가족’은 심각한 해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가족을 주요 담론으로 내세우는 것이 자칫 시대착오적 논의로 비추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족의 해체 이후에도 가족이 온다고 답했던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⁵⁾의 말처럼 결국 가족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사회에서 무엇보다 중대한 해법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이에 본고는 ‘소수자’와 ‘가족’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입각하여 <방한림전>의 ‘소수자들이 만든 가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⁶⁾

5)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 지음/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 출판사, 2005, 23-24쪽.

6) 본고는 이본인 <낙성전>과 <가심쌍완기봉>은 제외하고 선행본으로 추정되는 <방한림전>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2. <방한림전> 속 소수자들⁷⁾

1) 전복(顛覆)의 소수자

(1) 방관주

젠더위반은 방관주의 소수자적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다. 방관주는 딸로 태어났지만 아들로 성장했다. 방관주 스스로가 어릴 때부터 여공보다는 글 읽고 쓰기를 좋아하였다고는 하나 그 젠더 위반자로서의 삶에는, 오래도록 아들을 기다리며 난임을 겪어온 그의 부모의 미필적 고의가 드러나 있다. 방관주 부모는 “옥(玉)으로 식이고 솟 갓튼 녀아(女兒)”를 얻음에 몹시도 기뻐했고 방관주가 자라 말을 하게 되자 “이중(愛重)하야 아달 읍스물 혼(恨)치 아니” 하였다. 그러나 이후 “여복(女服)을 나오지 안이하고 친척(親戚)으로 하야금 아달이라 혼던이”라고까지 말한 부분에서 딸을 얻은 후에도 아들에 대한 선망과 유감이 여전히 크게 남아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⁸⁾ 더군다나 방관주 팔세에 부모가 죽고 삼년상을 치를 때에도 친척 누구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 제 아무리 여화위남(女化爲男)을 향한 방관주의 뜻이 남달랐고 그 뜻을 모두 용인할 만큼 부모가 유순하였다고는 하나 방관주 부모의 적극적

7) 사회적 이념이 낳은 제도와 관습은 역사적으로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대다수에게는 결코 관대하지 않았다. 소외된 자들은 수적으로는 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스스로 주변적 존재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여기에서 소수자(少數者) 문제가 생겨난다. 특히 조선시대는 유교적 지배이념을 기반으로 출신 성분에 의한 신분차별과 남존여비 관념에 따른 성차별이 극심했다. 여성은 물론 서얼, 중인, 천인, 노복, 기생, 무당 등 양반 남자를 제외한 대다수가 소수자로서 차별적 질서에의 순응을 강요받았다. 여성, 하위 신분계층과 같은 생래적 소수자 집단이 대부분이었지만 양반 계층으로서 사회적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천부적 기질이나 신념에 충실하고자 스스로를 세상의 질서 밖으로 몰아간” [김진영 외, 앞의 논문, 4-5쪽.] 주체적 소수자 집단도 있었다.

8) 장시광 옮김,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주), 2006, 90-93쪽.

격려나 용인이 없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인다. 여기에서 여화위남의 삶은 그 누구도 아닌 방관주가 스스로 선택한 것은 맞지만 부모의 중개자적 역할이 큰 몫을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여의게 된 방관주가 본격적으로 남자로 처신하며 유모 유랑에게 뜻을 재차 밝히는 장면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너 너의 선친(先親)과 모명(母命)을 밋즈와 남아(男兒)로 헝헝 지 삼년이 거의요 혼 번도 기복(改服) 혼 비 읍난이 웃지 졸연(卒然)이 너의 집심(執心)을 곳치여 선부모(先父母)의 뜻을 저바리이요? 너 맞당이 입신양명(立身揚名) 하야 부모의 후스를 밋너린이 어미는 괴로운 언논(言論)을 다시 말나. 너의 본스(本事)을 타인(他人)게 말을 말물 바라노라.”⁹⁾

방관주의 여화위남을 통한 입신양명이 부모의 뜻이었음은, 과거에 급제한 후 “이 갖튼 영화(榮華)를 부모(父母)게 보이지 못흐물 슬어하야 봉안(鳳眼)의 주루(珠淚) 쌍쌍(雙雙) 하더라.”¹⁰⁾는 대목에서도 엿볼 수 있다. 누구보다 그의 부모가 살아생전 갈망하던 모습이었기에 입신양명의 순간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을 매우 애달파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방관주가 애초에 남치지향성을 갖게 된 데에는 “타고난 기질과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이 모두 원인이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방관주의 남장을, “당대 여성의 현실을 절실히 인식한 데 따른 의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남성에 대한 일방적이고 무의식적인 지향”¹¹⁾으로만 보는 데에는 이견이 있다. <방한림전> 서사는 천상계와의 연계 화소를 통해 본래 방관주가 남성인 문곡성이었으며 별을 받아 여성으로 태어났음을 암시한다. 결국 남성이었던 사람이 본래의 남성성을 지향하게 된 것이 되므로 방관주의 행위는 무의식적인 남성 지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9) 앞의 책, 95쪽.

10) 앞의 책, 108-109쪽.

11) 장시광 옮김, 앞의 책, 233쪽.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방관주의 자발성을 무조건적인 선망과 동경의 선상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소설적 관습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그 시대에는 여성이 남장을 하는 것 말고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에 맞설만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상계라는 서사적 장치를 마련하여 현실세계에 양면 배치한 것도 “내면의 폭발적인 분출을 감추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¹²⁾에 불과하다. 이는 남장이나 동성혼 같은 소수자적 행위의 본질을 깊숙이 숨기고 독자에게 특별한 거부감 없이 어필하고자 했던 작품의 시대적 상황의 한계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의 여성주인공들이 여성젠더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남성젠더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단순히 ‘남성’을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젠더’에게만 허용된 다양한 역할과 권리를 선망하”¹³⁾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 방관주는 부모가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고 난 후 혈혈단신 여식의 몸으로는 후사를 잇고 가문을 빛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의 성역할에 대한 좌절은 당대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온 유교적 정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조선의 남성들은 너나없이 충신이나 효자가 되고자 했지만 사회적 자아 실현의 통로가 봉쇄된 부권제 사회에서 조선의 여성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란 제도에 희생당하며 살거나 열녀로 죽는 것이었다. 방관주는 이에 굴종하지 않고 남북 개척을 해서라도 효나 충을 실현할 수 있는 남성젠더의 주체성을 간절히 꿈꾸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는 고대부터 이어오던 양계제도가 부계제도로 바뀌던 시기였다. 그중에서도 작품의 배경이 되는 조선 후기 사회는 성리학적 예론이 심화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비로소 안정되기에 이른다. 양계제도에 익숙했던 여성들에게 부계제도란 다분히 고통스러운 억압이랄 수밖에 없었겠지만 곧 집안

12) 정병현, 앞의 논문, 382쪽.

13)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31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186쪽.

내에서 보장되는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권리를 확대시키며 주어진 여건에 적응해 나갔다.¹⁴⁾고 하겠다. 그러나 여기에 도저히 순응할 수 없는 여성들도 존재했다. 방관주도 바로 그 중 한 사람이다.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남장이라는 ‘숨김’으로밖에는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실현하기 어려웠을 전통사회의 한계를 간과하고 남성콤플렉스로만 치부하는 것은 당시의 제도의 한계와 문학의 존재 이유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결과¹⁵⁾가 아닐 수 없다. 즉, 방관주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뚜렷한 남성지향으로 비춰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어쩌면 마땅한 돌파구가 없는 폐쇄된 사회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방관주 만의 몸부림이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방관주는 자식으로서의 효를 다하지 못한 뼈아픈 좌절과 책임의 무게와 더불어, 남성젠더로서의 이상실현을 위해 본격적인 젠더 위반을 감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목적 없는 남자 지향이라기보다는 함목적적 남자 지향이요, 단순한 남성 동경이기 보다는 극복할 수 없는 남성 지향의 가부장적 사회를 오히려 역이용하기 위한 전략적 남성 추구라 하겠다.

이러한 시각은 방관주를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성소수자로 보는 일부 견해¹⁶⁾와는 상충된다. “여성이 아닌 ‘남성’이 되기를 원했다면 구태여 ‘출세한 남성’을 본받을 까닭은 없”¹⁷⁾으므로 이것은 방관주의 남복개착의 삶이 성적 지향은 아님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도서출판 월인, 2007, p.25쪽. 참고.

15) 정병현, 앞의 논문, 2007, 382-384쪽.

16)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17)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45쪽.

그러나 지적할 것은 이 내용이 장시광의 논문(<방한림전>에 나타난 동성결혼의 의미, 국문학연구 제6호, 2006, 268쪽.) 속 해석과 다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시광은 주로 방관주를 무의식적인 남성지향으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였으나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의하면 방관주는 그냥 ‘남성’이 아닌 ‘출세한 남성’이 되고자 했으므로 사실상 무의식적인 남성 지향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또, “남장의 이유를 남성의 모양을 갖추지 않고서는 남성들과의 경쟁이 불가능한 현실과, 남성과 같은 지점에서 출발할 수 있어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생적인 여성을 감추었”¹⁸⁾다고 보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 “스스로 해방된다는 것은 이탈을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세계를 함께 나누는 자로서 자신을 긍정하는 것, 비록 겉모습은 그와 반대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대와 동일한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¹⁹⁾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방관주는 극단적 투쟁이나 저항이 아닌 위장을 통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해방과 공유를 꿈꾸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수자적 해방은 방관주 개인의 자아실현에의 욕망과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방관주의 소수자적 면모는 창조적²⁰⁾이거나 천재적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전복적’인 양상²¹⁾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타 영웅소설들과는 달리, <방한립전>은 영웅적 활약상과 조력자와의 만남, 수련의 과정 등을 지나치게 소략하고 있다. 방관주가 여성이면서 남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혼의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방관주가 영혜빙을 만나고, 또 하늘이 내려주는 낙성을 입양하는 일을 그저 우연한 일로 치부할 수는 없”²²⁾는 것이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극복될 수 없으면서 평생에

18)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소설의 성차별의식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42쪽.

19)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13-114쪽.

20) 토인비는 ‘창조적 소수자’에 대해 이야기한다. 즉, 새로운 세계를 열고 역사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것이 그들이라는 것이다.

- 아놀드 조셉 토인비 지음/ 김규태·조종상 옮김, 『역사의 연구Ⅱ』, 더스타일, 2012, 39-40쪽.

21) 방관주·영혜빙이 감행한 젠더 위반과 동성 결혼은 유교이념과 가부장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당시 사회에 근간이 되는 것으로서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두 인물의 행위는 다분히 전복성(顛覆性)을 띠었다고 할 것이다.

22) 정병현, 앞의 논문, 388-389쪽.

결쳐 위기감을 증폭시켜온 방관주의 소수자적 한계는 결국 그 전복적 결말을 염두에 둔 것이라 하겠다. 천상에서의 인연이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결말로 맺어지면서 작품 전반에 면면히 흐르던 반인륜적 서사의 파격적 긴장감은 결국 극단적인 전복에는 미치지 않고 무난히 해소되고 용인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적강(讒降) 모티프의 힘을 빌려 포장됨으로 인해 직접적인 비판을 모면하였다고 해서 <방한림전>의 전복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불합리한 사회구조와 억압된 소수자의 삶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토록 목숨을 걸고 여화위남의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 방관주를 매우 신선하고도 안타깝게 기억할 것이다. 그 신선함과 안타까움은 전근대의 소수자 방관주와 영혜빙의 전복성이 주는 막강한 문학적 파급효과라 하겠다. 즉, 이들의 전복성은 사회 체제에 대한 가시적 전복성에는 미치지 못할지언정 사회적 통념에 대한 고도의 전복성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²³⁾

(2) 영혜빙

영혜빙은, 무남독녀였던 방관주와 달리 7자 5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으며 그 중 용모와 재질이 가장 뛰어났다. 또, 방관주가 젠더 위반의 삶을 살게 된 데 있어 부모의 지지와 배려가 뒤따랐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영혜빙은 본인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족의 변변한 조력을 받지 못했다. 혼전에 영혜빙은 “세상(世上) 부부의 영욕(榮辱)을 초월(楚越) 갖치 비척(排斥)”하였기에 “제형(弟兄)덜이 활발(活潑)타 조롱(操弄)하니 부모(父母) 다 그 심정(心情)을 고히 역이던이”에서와 같이 형제들의 조롱과 부모의 근심을 사고 있었다. 문제는 영혜빙의 아버지 서평후가 일찍이 딸의 남다른 성향을 알았고 괴이하게 여기고 있었으면서도 “방(方) 할림(翰林)을 (영 공이) 크게 사랑하야 구혼(求婚)하물 지극(至極)히” 했

23) 천상계의 남성을 지상의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여 젠더 위반을 통한 삶을 살게 한다는 설정은 이 작품의 작자가 가지는 문학적 전복성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는 점이다.²⁴⁾

“요조숙녀(窈窕淑女)난 군즈호구(君子好逑)요, 관 저구(關關雎鳩)난 지흐지쥬(在河之洲)라 하니 노부(老父) 자식(子息) 기리미 가쇠(可笑) | 어니와 당금(當今)의 그딤 군즈지풍(君子之風)이 잇고 너의 여아(女兒) 숙녀지풍(淑女之風)이 잇스니 이러무로 발설(發說)호야난이 족호(足下)는 의심(疑心)치 말고 다만 명일(明日) 누사(陋舍)의 임(臨)호여 노부(老父)로 더브러 ㅁ림(梅林) 호(下)의 향은(香醞) 맛보미 엇더호요?”²⁵⁾

위 내용은 서평후가 딸 영혜빙을 신부감으로서 방관주에게 적극 추천하는 대목이다. 여기에는 명망 있는 아버지의 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다분히 드러나 있다. 우선 앞서 혼인시킨 여러 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막내딸 양혜빙 또한 좋은 배필과 맺어주고자 ‘이지중지(愛之重之)’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엿보인다. 그러나 “인윤(人倫)을 꺾었으면 꺾었지” 여자의 몸으로 “그 사람(男子)의 절제(節制)를 밋”으며 죄인처럼 사는 여자는 되기 싫었던 영혜빙이었다.²⁶⁾ 그만큼 주체적인 삶에의 의지가 확고했기에 영혜빙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의사를 묵살하고 그저 자식의 세속적 행복을 위해 그 질서 속에만 편입시키려 했던 가부장적 아버지가 달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본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혜빙은 아버지의 명령을 전해 듣고 나간 자리에서 운명처럼 방한림을 만나게 된다. “총명신괴(聰明神奇)난 본디 범인(凡人)이 안이”²⁷⁾던 영혜빙은 한 눈에 방한림의 남다른 정체성을 꿰뚫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이런 영웅(英雄)의 여즈(女子)을 만나 일싱(一生) 지괴(知己) 되어 부부(夫婦)의 의(義)와 형제(兄弟)의 정(情)을 띠즈 일싱(一生)을 맞즈미

24) 장시광 옮김, 앞의 책, 112-113쪽.

25) 앞의 책, 114쪽.

26) 앞의 책, 112-113쪽.

27) 앞의 책, 119쪽.

너의 원(願)이라. 너 본디 남즈(男子)의 총실(寵室)이 되어 그 절제(節制)를 밋으며 눈섭을 그려 아당(阿黨)호물 괴로이 역여 금실우지(琴瑟友之)와 종고지낙(鍾鼓之樂)을 너 원치 안턴이 우연이 이런 일이 잇슨이 웃지 우연타 흐리요? 반다시 천도(天道) 유의(留意)호시미라. 슈건(手巾)과 빗슬 가음아난 구구흐디 이예셔 낫지 안이리요?”²⁸⁾

위는 그동안 전형적인 사대부가 아녀자로서의 혼인을 막연히 비판해 오던 영혜빙이, 방관주와의 만남을 계기로 그와 같은 영웅적 지기(知己)와의 여여결연(女女結緣)을 갈망하는 방향으로의 사고전환을 이루는 대목이다. 여기에서의 평생지기(平生知己)란 “차라리 아름다운 숙여((淑女)을 으더 평칭지긔(平生知己)”²⁹⁾를 꿈꿔오던 방관주의 이전 생각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그는 스스로 소수자적 삶을 굳게 지향하는 이상, 위장 결혼이라는 ‘차라리’의 선택도 마다하지 않은 심산이었던 것이다. 영혜빙은 방관주와의 극적 만남을 통해 ‘필연적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면서도 자신의 소수자적 지향을 마음껏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자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차별과 제약이 방관주와 영혜빙으로 하여금 또 다른 소수자의 길을 걷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그런 점에서 이렇다 할 문제의식 없이 딸을 출가시키려 했던 영혜빙의 아버지 서평후는, 의도치 않게 영혜빙을 또 다른 소수자로서의 길로 인도하게 만든 중개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방한림의 부모의 경우, 방한림의 소수자적 삶을 용인하고 기반을 마련해준 동조적 인물인 반면, 영혜빙의 부모의 경우에는, 영혜빙에게 통념상 보다 전복적인 선택을 하게 하여 보다 적극적 소수자의 길을 걷게 한 반동적 인물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영혜빙의 부모와 방한림의 부모가 자녀의 소수자적 면모에 대한 대응 방식은 사뭇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양 부모의 마음이 자식들을 보다 뚜렷

28) 앞의 책, 120-121쪽.

29) 앞의 책, 113쪽.

한 소수자의 길로 안내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의 말미에서 서평후가 마침내 사위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영혜빙에게 “승상(丞相)을 몰나보미 다 노부(老父)의 소활(疎闊) 허민이 여부(汝父)의 탓이연이와 네 형스(行事) 인정(人情) 맞기라. 지금가지 부모(父母)를 속인이 가(可)치 안인야?”³⁰⁾라고 한다. 방관주의 면모를 미처 알아보지 못한 자신을 탓하면서 동시에 딸이 부모를 감쪽같이 속인 일 또한 원망하며 통탄해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관주와 영혜빙, 두 사람의 지향이 지극히 닮아있었기에 사생지기(死生知己)가 될 수 있었으나 서평후 자신 역시 영혜빙의 특별한 기질과 가치관을 오래전부터 알았으면서도 그저 ‘군자의 짝이 될 착한 숙녀’로만 방관주에게 적극 추천한 것은 사위를 속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서평후는 방관주의 커밍아웃 직후 방관주를 직접적으로 탓하거나 힐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꽃다운 소저 시절에 영혜빙은 말끝마다 “녀자(女子)난 죄인(罪人)이라. 박사(百事)의 임의(任意)치 못하야 그 사람의 절제(節制)을 벗어나 남아(男兒) 못될지되 인윤(人倫)을 굶치미 올호이라.”³¹⁾고 하였다. 이 대목은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방관주와 마찬가지로 소수자 영혜빙이 보여주는 전복성(顛覆性)이다. 여기서의 ‘죄인’이란 원초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태어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천상계의 원죄’로 인한 환생을 염두에 두고 그 운명의 전복성(顛覆性)에 대해 생각해보자. 둘은 똑같이 죄인인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방관주는 영웅이 되어 죄인으로서의 운명을 뛰어넘었고, 죄인으로 살아야 할 그 세상에서 다름 아닌 최고의 권력자가 된다. 영혜빙 또한 남의 규제 없이 마음대로 하는 삶을 살고 스스로 인륜을 굶침³²⁾으로 인해 원죄의 사슬에서 더없이 자유로워

30) 앞의 책, 206쪽.

31) 앞의 책, 112쪽.

32) 앞의 책, 113쪽.

진다. 이러한 주체적 욕망의 실현자라는 점에서 영혜빙도 방관주와 함께 ‘전복(顛覆)의 소수자’로 분류할 수 있다. 물론 평생을 죄의식에 떨며 살았던 것으로 원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기에 천인공노(天人共怒)할 전복적 행적에도 불구하고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두 사람이다.

또 하나, 천상계의 원죄를 짊어진 두 주인공이 하나같이 명망가의 여식으로 태어났다는 점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대부가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시절 여성의 지위란 것이 죄인으로 비견될 만큼 소수자의 위치였음을 방증한다. 조선시대 사대부 여성의 소수자적 한계를 부정하려는 시각도 있으나 엄연히 “언문 사용, 규방공간으로의 제한, 활동 영역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조선의 여성들이 양반 남성들의 대립항으로 존재”³³⁾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작품 속 천상계의 징계란 단지 ‘여성으로 태어난 것’만은 아니었다. 작품의 말미에서는 “티을(太乙)이 희롱(戲弄)하야 여즈(女子)가 되게 허문 허명(虛名)으로 부부(夫婦) 되야 천상(天上)의셔 너무 방즈(放恣)하물 벌하미라.”라고 하였다. 즉, 근본적으로는 천상에서 깊이 사랑하던 남녀를 모두 여성으로 태어나게 함으로써 유교적 질서구조 하에서는 결코 결합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그 천상계의 인연이란 것은 영혜빙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사실이므로 그가 천상계의 원죄를 염두에 두고 ‘여자는 죄인’이라고 말했을 리는 없다. 즉, 현생의 영혜빙에게는 ‘남녀 모두 허명 부부로 태어나 살게 한 것’이 아닌 뿌리 깊은 차별과 억압의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남’이 결정적인 죄목이 된다. 이상에서 소수자적 인식의 발현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의 주체적 인식 위에서 발현되는 것이며, 실제적 삶의 경험 속에서 존재하고 성장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작품의 전복성을 다시 전복시키는 천상계의 반전 화소에도 불

33) 김경미, 앞의 논문, 『고전문학연구』 제29집, 51쪽.

구하고 그것이 작품의 후반부에야 독자에게 공개됨으로써 독자가 소수자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진지한 물음표를 던지고 그 전복적 삶의 가치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들어 <방한림전>은 그 시대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특별한 위상을 지녔다고 할 것이다.

2) 잠재(潛在)적 소수자

(1) 유랑

조선시대의 유모는 일반적으로 주인일가의 아이를 키우는 비(婢)였다. 그들은 중소지주(中小地主) 이상 양반가의 사치노비³⁴⁾로서 존재하였는데, 유모가 육아의 전반을 맡음으로 해서 사대부 부인들은 “양반으로서의 체통유지와 여유 있는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였다. 대신에, 출산 직후 수유기에 있는 비(婢)가 주인가의 유모가 될 수 있었으므로, 유모가 자기가 낳은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지사여서 어떠한 경우에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돌보지 못해 죽이는 불상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과의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녹록치 않았던 것이 유모의 삶이었다. 그러나 삶의 주체성을 송두리째 빼앗기고 기속(羈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르는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육아가 고역(苦役)이었으며, 특히 유아사망률이 높던 당시에 아이의 득병(得病)·피상(被傷)·사망 등에 문책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³⁵⁾ 업무의 특성상 유모라는 존재가 다른 비(婢)보다 좋은 의복과 음식 등의 후한 대접을 받았

34) 노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도 귀족들의 잔심부름을 할 뿐 싸우지 않았고 나라에 궁궐을 짓거나 성을 쌓을 때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은 때로 농사일 같은 노역도 담당했으나 주된 일은 상전의 집에서 수종을 들고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치노비나 가내노비라는 호칭이 생겨났다. [네이버 지식백과], 신분제도(문화콘텐츠닷컴-문화원형백과 연오랑 세오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35)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집문당, 1997, 62쪽. 참고·인용.

던 부류였다고는 하나 사실상 유모는 다른 어떠한 하층계급보다 불안정하고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상층만을 위한 질서 속에 평생 기속(羈屬)되어 살아야만 했던 비참한 소수자 신세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상추가의 비(婢) 분진(分眞)에 대한 기록에서 그가 78세를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유모로서 5대의 상전을 모셨으며, “노상추일가의 일기에서 분진의 죽음에 대해 가족과 같이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녀는 가히 노상추 가족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³⁶⁾고 본다. <방한림전>의 방관주에게 있어서도 유랑의 존재는 유모 그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랑은 방관주의 부모가 예기치 않게 유명을 달리한 후로 홀로 남은 어린 방관주의 곁을 지키며 부모의 역할을 다하였고, 방관주가 잠시 집을 떠나있을 때에는 유랑에게 집안 살림을 오롯이 맡길 만큼 크게 의지했다.

비(婢)였던 유모는 방관주가 사대부의 아내로서 혼인을 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았기에 애써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유모의 눈에 어떠한 식으로도 신분적 속박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자신에 비해 방관주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철없는 사대부의 아이였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넘어설 수 없는 소수자 간 위계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유모는 선택의 여지없이 방관주의 무시할 수 없는 기밀공유자로서, 고아가 된 어린 주인을 보호해야 했던 소수자 가족의 어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낙성

남북개척의 삶을 무리 없이 이어가던 방관주에게는 현실적으로 몇 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 첫 번째는 보통의 사대부의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정혼할 나이에 정혼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늦지 않게 후사를 이어 가문의 만사형통을 보란 듯이 증명하는 일이었다. 방관주는 다행히

36)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네머북스, 2009, 149쪽.

자신을 알아봐준 영혜빙과의 극적 동성혼을 통해 남성적 지위를 지킬 수 있었지만 필연적으로 닥친 후사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잡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나타난 낙성으로 인해 그는 두 번째의 고비도 운 좋게 넘기게 된다.

낙성은 방관주가 형주 안찰사로 있었을 때 예기치 않게 얻게 된 아이였다. “호련 벽녀(霹靂) 일성(一聲)의 큰 별이 썩러진이 발근 기운이 조요(照耀)하야 스기 열의엇던” 가운데 “슈유(須臾)의 날빛치 명날(明朗)하거날 안딤(按臺) 곳쳐 본이 별의 광치(光彩) 업고 옥(玉) 갓튼 아희 노엿난지라.”³⁷⁾고 하였다. 이 같이 아이의 신이한 출현을 본 방관주는 하늘이 준 아이로 여기고 크게 기뻐하였고 그 아이의 이름을 낙성이라 짓는다.

낙성은 준수하고 통달한 모습으로 훌륭하게 자라났고 열두 살에 장원급제를 한 아버지의 영광을 이어 열셋에 장원이 된다. 이러한 낙성의 존재는 방관주로 하여금 커밍아웃의 시한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게 해주었다. <방한립전>에서 후사잇기가 강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방한립 부부의 비밀을 유지하는 굳건한 장치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다음으로 가문소설로서의 의미도 지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 근거로 “방관주가 낙성을 얻은 연유를 설명하자 영혜빙 또한 기특히 여기며 열성으로 길렀다는 점과 낙성의 결혼과 아이의 순산이 이어짐으로써 가계가 번창하고 있다는 점”³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방관주 부부는 낙성을 하늘이 내려주었다고 굳게 믿었고, 본문에서는 “상셔(尙書)와 부인(婦人)이 어루만져 기출(己出)노 어듬 갓더라.”라고 하여 자신들이 낳은 아들과 같이 여겼으며, 이것이 “가히 고왕금년(古往今來)의 드문 일”³⁹⁾이었다고 묘사되고 있다. 작품 속에서 낙성을 과연 하늘이 내

37) 앞의 책, 142쪽.

38) 정병현, 앞의 논문, 393-394쪽. 참고·인용.

39) 장시광 옮김, 앞의 책, 45쪽.

려주었는지는 명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후사에 아쉬움이 많던 방관주 앞에 낙성이 혜성같이 출현하였고 ‘대장군 양덕의 주성(主星)이 떨어진 것’과 ‘자기 주성(主星)인 문곡성의 광채가 더해진 것’을 근거로 하늘이 준 아이로 봐줄 것으로 독자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관주와 영혜빙의 동성혼에 있어 천상계 화소가 하나의 안전장치로서 가동되듯이 천애고아 낙성의 갑작스런 출현 역시 ‘대장군 양덕의 핏줄’이자 ‘하늘의 뜻에 의해 신이하게 내려진 아이’로 포장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이론의 관점에서 낙성은 사실상 근본을 모르는 입양아로 소수자 신분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어린 소수자는, 방관주 부부의 위장된 동성혼을 유지시켜준 하나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이후 방 씨 일가 소수자들이 정체성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족으로서의 성공을 거두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방한림전>의 소수자들이 위장과 연대를 통해 다수자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듯하지만 근본적인 소수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낙성도 마찬가지다. 명망가에 입양되어 부모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아버지의 명성을 부족함 없이 잇게 되는 그이지만 여전히 그를 소수자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하늘이 내린 아이’이든 ‘명망가의 후손’이든 간에 가족들과 철저히 비혈연 관계라는 사실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의 형성과 성장

1) 방관주 · 영혜빙과 유랑

유랑은 방관주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방관주가 고아라는 소수자적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부터 그와 보다 특별한 유대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잠재적 소수자였던 유랑이 소수자 가족의 일원이 되면서 비

로소 보다 적극적이고 유의미한 소수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유량은 방관주가 부모를 여의고 본격적으로 남장을 하는 것을 염려하여 다음과 같이 고한다.

“이제 쇼저(小姐)의 방년(芳年)이 구 세라. 규리(閨裏)의 여자(女子) 십 세의 불출문의(不出門外)라 호운이 원컨디 공즈(公子)난 도라 싱각호 시고 우은 거쥬(舉措)을 그만 굿치스 나중을 어즈랍게 말오스 선노야(先老爺) 부인(夫人) 영혼(靈魂)을 평안(平安)이 호쇼서.”⁴⁰⁾

제 아무리 젖을 먹여 키운 유모라 할지언정 노비의 신분인 유량이 사대부가의 자제이면서 제 주인인 방관주에게 이래라저래라 꾸중과 책망을 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인다. 그것도 부모가 생전에 독려했을 만큼 전혀 문제가 없던 ‘남장’에 대해서다. 이전에는 드러내지 않았다가 이제야 무거운 근심을 털어놓으며 적극적으로 방관주의 행위를 말리는 유량의 태도는, 이제는 죽은 부모를 대신해 방관주의 부모 된 역할을 자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친부모의 견해와는 상충된다. 먼저 간 주인부부의 뜻을 따라 그 자제를 돌보겠다는 기속자적 본연의 입장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든 가문을 일으키고 입신양명하여 나라에 충성해야 한다는 유교 이념의 수호자적 입장도 아닌 것이다. 본고는 이 부분을 연장자 유량 나름의 교육적 소신으로 이해한다. 유량의 마음속에는 가문 회복이나 세속적인 출세보다 남을 속이면 안 된다는 보편적인 도덕적인 관념이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특정한 이념 교육이나 세뇌가 없어도 수 세기를 면면이 이어온 이 땅의 뿌리 깊은 민(民)의 정서였을 것이다. 유량의 사심 없는 조언은 기본적으로 그저 물가에 내놓은 어린 아이 같은 방관주를 진심으로 아끼고 염려하는, 부모다운 마음에서 유래한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0) 장시광 옮김, 앞의 책, 94쪽.

“가(可)치 안타. 우리 낭군(郎君)의 혼사(婚事)난 옥(玉) 갖튼 군즈(君子)의 잇스니 웃지 규슈(閨秀)의 잇스리요? 이럿듯 고히흔 거조(舉措)를 헝시고 나종을 엇지려 헝신잇가?”⁴¹⁾

영씨와의 혼사 문제에 있어서도 유량은 위와 같이 근심하여 말하고 있다. 만일 나이 많은 유모가 어린 방관주의 뜻에만 복종하고 지지하고 따랐다면 그것은 비복의 행위이지 가족의 그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소저가) 강열엄위(強烈嚴威)헝야 비복(婢僕) 등도 부출구외(不出口外)라.”는 대목에서 이미 다른 비복들도 방관주의 정체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방관주의 엄포가 두려워 침묵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하층 신분으로서 평생 소외된 삶을 살았던 유모였기에 오히려 귀한 신분으로서 헝난한 소수자의 길을 가는 방관주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할림(翰林)이 닙경(入京)헝야 너른 당(堂)의 봉안(奉安)헝고 유모(乳母)를 더욱 후더(厚待)헝니, 유랑(乳娘)이 소저(小姐) 이럿듯 헝물 민망(憫憫)헝나 감히 다시 고(告)치 못헝니 큰 근심을 삼아시나 이갓튼 영화(榮華)를 당(當)하야 두긋기물 마지 안터라.

위는 유모에 대한 방관주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방관주가 장원급제 직후 고향에 내려가 유모만 데리고 입경하였고 이후에도 유모에게 더 후한 대접을 해주었다고 되어 있다. 고향에 가묘(家廟)와 집을 남겨두고 왔으므로 유모가 그곳에 남아 집안 살림을 관리해도 되었겠지만 굳이 유모만을 데리고 간 부분에서 방관주의 유모에 대한 의지와 애착이 남달랐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끝부분에서 유모는 방관주의 본격적 젠더위반을 크게 걱정하면서도 그의 성공에 대해 매우 기뻐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와도 같은 존재

41) 장시광 옮김, 앞의 책, 118쪽.

였던 유모는 자식 같은 방관주의 남모를 노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근심하고 안타까워하였고 그의 성공에 있어서도 크게 기뻐하였던 인물로 하층의 소수자에서 소수자 가족의 연장자로서 점차 변모한 것으로 보인다.⁴²⁾

이러한 방관주와 유랑의 연대는 결혼 후 아내인 영혜빙에게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 아래는 방관주가 가족들 앞에서 낙성과 김소저와의 혼인을 결정하여 말하자 유랑이 나와 직언하는 장면이다.

“스스(事事)에 부인(夫人)과 낭군(郎君)은 질기신이 정(正)히 기동의 불이 붓난디 연작(燕雀)이 오히려 질긴다 헛던이 흡스(恰似)헛도다. 만물(萬物) 초목금슈(草木禽獸) 다 일흠이 다 음양의 드난 게 셋셋헛거날 낭군(郎君)과 부인(夫人)은 인윤(人倫)을 스절(謝絶)헛시고 연광(年光)이 이십(二十)이 지나 계시거날 두쇼저 홍옥초춘(紅玉初春)이 앓갑고 우흐로 양위(兩位) 노야(老爺) 목주(木主)을 근심헛나이 장츠(將次) 나중이 엇지 되잇고? 더욱 부인(夫人)은 침묵(沈默)헛시고 가지록 고집헛스 지금갓 실상(實狀)을 존당(尊堂)의 고(告)치 안이스 일양(一樣) 주표(朱標)를 감초아 스스로 무즈(無子)한 체하신이 웃지 고이(怪異)치 안이릿고?
(중략)

여기에서 유모는 자신이 그간 여화위남의 행위로 질타해왔던 방관주는 물론, 방관주의 허물을 덮고 부모를 속이며 오히려 같이 즐기는 듯한 영혜빙까지도 강하게 꾸짖고 있다. 이는 마치 한 집안의 큰 어른이 앞뒤 분별없이 날뛰는 칠없는 신혼부부를 가차없이 나무라는 듯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유모가 말에 영혜빙은 “언미필(言未畢)이 부인(婦人)이 수려(秀麗)한 성모(星眸)의 묵묵

42) 정병현은 “방관주가 남자로서 과거에 급제하자 남장을 늘 못마땅해 하던 유모마저 ‘즐거워함을 마지않게’ 된다.”고 하면서 유모를, “여성으로서의 고단한 삶을 거부했던 방관주의 생각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용인했던 부모의 연장선상에 놓인 존재”라고 하였다. - 정병현, 앞의 논문, 388쪽.

(默默)히 질계 안이(하야 봉미(鳳眉)를 썩고 정식(正色)”하고 있다. 유모의 말이 백번 옳다고는 하나 그의 거친 조언이 영씨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영씨는 유모의 말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유모의 말에 “진목(嗔目)하여 심하게 질(叱)”하는 방관주에게 냉소로써 맞서며 다음과 같이 유모의 편을 들고 있다.

“문빅 형(兄)은 웃지 우연한 일의 유모(乳母)를 질타(叱咤)하십니까?
유모 불과 위주충심(爲主忠心)이라. 또한 알음답지 아니나?”

영혜빙은 여기서 이례적으로 “문빅 형”이라는 방관주의 자(子)를 부르며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영혜빙은 “위주충심(爲主忠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유모의 마음이 단순한 위주충심(爲主忠心)을 넘어선 모성적 애착에 다름 아님을 앞서 살펴본 바 있다. 유랑이 방관주의 아내 영혜빙까지도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혜빙 또한 방관주의 부모와 같은 유랑의 마음을 백번 헤아리고 있기에 방관주의 과도한 언행을 가차 없이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하나같이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기반 한 것으로 방 씨 부부와 유랑의 연대가 다분히 부모 자식 간에서와 같은 애착(愛着)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방관주는 유모의 말이 다분히 거칠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틀린 것이 없었고 그 속에 감추어진 유모의 오랜 마음을 알았기에 그를 내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곁에 두었다. 변방에 안찰사로 나갈 때에도 집안을 잘 부탁한다는 말이 아닌 “(몸을)保重(保重)하라”⁴³⁾는 당부를 했고 여느 가족의 작별인사와 다름없이 유모는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이별하였다. 그러한 유모의 하찮은 노파심마저 “혼연(欣然)이 위로(慰勞)하고”⁴⁴⁾에서

43) 앞의 책, 136쪽.

44) 앞의 책, 137쪽.

와 같이 좋은 낫빛으로 위로하던 방관주였다.

정리해보면, 유모 유량은, 방관주가 위장된 삶을 통해 다수자의 권력을 역이용하는 남자로 살지만 그가 근본적으로 여성의 신분을 잊어서는 안 됨을 끊임없이 자각시키는 인물이다. 소수자의 한계를 깨우치게 하려는 이러한 가족 내 반동적 인물은 방관주를 포함한 가족 모두를 다수자의 권력에만 안주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목 받아온 유모와 방관주의 갈등은, 특별한 장애물 없이 승승장구하는 방관주 일가의 유의미한 서사적 자정(自淨) 장치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방관주와 영혜빙

앞선 논의들에서, 방관주는 여성 정체성에 대한 주변의 의심을 피하고자, 영혜빙은 여성이라는 비주체로서의 결혼 생활을 피하고자 각각 동성혼을 감행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세세한 사정은 달랐지만 두 사람 모두가 ‘여성’이라는 소수자적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는 점이 파격적 연대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동성결연을 이룬 방관주와 영혜빙은 “지기(知己)을 으더 서로 밋물(埋沒)치 안이물 깃거흐”⁴⁵⁾였는데, 그들의 소수자적 인생이 그들만의지기(知己) 연대 속에서 무탈할 수 있음에 무엇보다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⁴⁶⁾ 또한 “할림(翰林)이 도당(朝堂)의 갖

45) 앞의 책, 130쪽.

46) 조혜란은 “아는 이 하나 없는 시집 공간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새롭게 맺어가야 하는 시집살이가 아니라 시집간 후에도 한 공간에서 혼전의 여성 지기들과 함께 하고 싶은 욕망, 그 연대에 대한 공감의 일부다처제라는 기존의 제도를 전유하는 방식으로, 시대와의 타협점을 찾아 소위 ‘한 남성을 같이 섬기는(혹은 공유하는)’ 일부다처제 혼인의 적극적 수용으로 귀결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한 남성을 같이 섬기는 방식이 아닌 남성으로 위장한 여성과의 적극적지기(知己) 연대로 귀결된 영혜빙의 욕망은 그야말로 시대를 앞선 아우토노미아적 실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조혜란, 「<숙녀지기>에 나타난 여성지기(知己)형상화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다 오면 너당(內堂)의셔 동일(終日)하고 외당(外堂)의 손을 모호지”47) 않았다는 대목에서 그들이 서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들만의 사적 공간 내에서 가장 그들다웠고 자유로울 수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들은 다수자의 권력에 맞서는 그들만의 가족 연대 안에서 진정한 개인을 실현하고 있으며 “상호협력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48) 연대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방관주가 자만하여 그들 연대에서 비롯된 성공의 결과를 혼자만의 공으로 돌리고 영혜빙에게는 군림하려는 전형적인 가부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음을 살펴보자.

부인이 낭쇼(朗笑) 왈(曰)

“군즈(君子) 상급(賞給) 맞든 거슬 아자(兒子)와 그딤난 가지되 첩(妾)의게난 맞치지 안이흐니 엇지요?

“이거슨 다 부인(夫人)의게 당(當)치 안이흐 비라. 가이 부인(夫人)을 쥬지 안견이와 시방(時方) 부인(夫人) 몸 우회 가진 위(威儀) 다 너게서 비로슨 비라. 흠독(洽足)호거날 투정(妬情)하신이 욕심이 지중(至重)호도다.”

부인(夫人)이 잠쇼(潛笑) 왈(曰),

“너의 당치 안인 비 그딤게 홀노 당한 비 잇스리요? 맛참너져리 쾌(快)한 체하시난요?”

승상이 웃던 미우(眉宇)를 썩고 흥미(興味) 스연(些然)호야 왈(曰),

“부인(夫人)은 들먹이지 말나. 시인(時人)이 날노써 환즈(宦者)라 할 지언정 궁곡(窮曲)히 의심치 안터이다.”

부인(婦人)이 잠쇼(潛笑)하더라.49)

위에서 방관주는 임금으로부터 하사받은 상급(賞給)을 낙성과만 나누

310쪽.

47) 앞의 책, 130-131쪽.

48) 구선정, 『장애인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릉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67쪽.

49) 앞의 책, 189-190쪽.

고 이의를 제기하는 영혜빙의 말을 당연지사로 묵살하고 있다. 소수자가 다수자로 위장하여 얻은 성과에 취하여 마치 다수자가 된 양 구는 것이다. 한편, 소위 여성 영웅의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일면을 보이는 방관주와 달리 영혜빙은 그저 너그럽고 여유롭다. 경직된 태도를 보이는 방관주를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낭소(朗笑)와 ‘잠소(潛笑)’로써 유쾌하게 대할 뿐 결코 적대적이지 않은 것이다. 단지 방관주 스스로가 잠시 잊고 있던 소수자적 초심을 중용(德憑)하는 영혜빙이 못마땅한 나머지 미우(眉宇)를 찡그고 흥미(興味)를 스연(些然)할 뿐이다.

이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부장적 권위에 취한 방관주의 파행이나 영혜빙과의 유의미한 균열 양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관주와 영혜빙이 주고받는 거친 듯 유쾌한 언쟁들은 마치 그들 스스로가 만든 가부장적 연행(演行)을 조롱하면서도 다분히 즐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평생을 적극적 젠더위반자로서, 소수자 가족을 이끄는 가장으로서 살아야했던 방관주였기에 때때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경직된 가부장적 인물로 비춰지기도 한다. 이같이 못한 가장의 모습마저 관대한 웃음으로 포용하는 영혜빙의 태도는 “서로가 지기임을 의심치 않기에 가능한 행동 양식”⁵⁰⁾으로 비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영혜빙에게 방관주가 숨겨진 욕망 실현의 대리적 주체인 것처럼, 방관주에게 영혜빙이야말로 감추어진 성정체성 실현의 대리적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⁵¹⁾

소수자 연대란 기본적으로 안이 아닌 밖에서 다수자의 권력의 독식에 맞서고 자신들의 몫을 찾고자하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 이

50) 김정녀, 『<방한립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학』 제 21호, 반교어문학회, 2006, 241-242쪽.

51) 장시광은 이와 관련해 “영혜빙은 방관주의 또다른 모습으로 형상화된 인물이다. 따라서 둘 사이의 관계가 서로 대극을 향하여 나가는 것처럼 같음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결사를 감추기 위한 기교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 장시광, 앞의 논문. 273쪽.

런 점에서 이치(理致)와 지감(知鑑)에 밝았던 영혜빙은, <방한림전> 소수자 가족 공동체의 대척점이 그들 안에 있지 않음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영혜빙의 태도는 유량과 마찬가지로 그들 공동체에 있어 자정(自淨)의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둘은 지기(知己)로서 해로(偕老)했고 방관주가 먼저 향년 삼십구 세에 명을 다하게 되자 같은 날 영혜빙이 그의 뒤를 따르게 된다. “스싱지기(死生知己)로 동혈(同穴) 셋글이 미멸가화(未滅佳話)요 천고기사(千古奇事)라.”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사생을 함께한 평생의 지기로서 한 무덤에서 안장되었고 이 이야기는 세세에 기억될 아름답고 드문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3) 방 씨 일가와 낙성

소수자 집단의 특성으로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와 더불어 ‘소수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 종종 언급되곤 한다.⁵²⁾ 이 중 마지막인 ‘소수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은 소수자의 ‘집합적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수자 스스로가 차별받는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는 의미다. 앞선 논의를 통해 방관주와 영혜빙은 여성으로서, 유량은 최하층신분으로서 어느 정도 위계나 형태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 모두는 소수자로서 집합적 정체성에 속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낙성은 ‘난 지 슈삭(數朔)은 흥여 퇴는’⁵³⁾ 어린 시절에 자의와는 상관없이 입양되었기에 소수자 연대의 집단적 정체성 형성에 있어 그 자발성을 적극적으로 논의선상에 놓기 어렵다. 여기에서 낙성을 방 가 소수자 집단의 한 구성원으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따른다. 작품 속에서는 낙성이 스스로 입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52) A.G. Dworkin and R.J. Dworkin, *The Minority Report*, CBS College Publishing, 1982, pp.15-19. 참고.

53) 장시광 옮김, 앞의 책, 142쪽.

에 대해 구체화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가지 근거를 통해 낙성이 자신이 아닌 부모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긍정해 볼 수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츠야(此夜)의 병부(兵部)을 다리고 너당(內堂)의 드러와 부인(婦人)과 말삼할시 흑탄희허(惑嘆噫嘯)허야 질기지 안이하니 즈부(子婦) 더욱 송연우고(悚然憂苦)허고 영부인(婦人)이 그 세상(世上)이 오라지 안일 줄 알고 기리 탄식(歎息) 왈(曰),

“우리 두 스람이 스십(四十) 연(年)을 영화(榮華)로 지너엿스니 티극비회(太極悲回)난 췌췌허지라. 오직 결단(決斷)허난이 우리 양인(兩人)이 싱스생사(生死)의 서로 짜로리라.”

승상(丞相)이 희허(噫嘯) 왈(曰),

“비록 지기(知己)의 정(情)이 듯겨우나 부인(夫人)이 웃지 싱사(生死)의 짜르릿가?”

병부(兵部) 나아가 고왈(告曰),

“엇지 야야(爺爺)와 티티(太太)난 밧그로 삼강(三綱)의 일흠이 잇고 안으로 관포(管鮑)의 지음(知音)이 계신이 험가지로 빅연(百年)을 괴약(期約)허실지라 웃지 불길(不吉)허신 말삼을 허신잇가?”⁵⁴⁾

위는 작품의 후반부로서 방관주의 요절에 대한 도사의 예언이 있는 후 큰 슬픔에 빠져 있는 방관주를 가족들이 위로하는 대목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방관주와 영혜빙 외에 ‘병부(兵部)’와 ‘즈부(子婦)’로 일컬어지는 낙성 부부도 동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자리에서 승상 방관주는 사십 년을 영화로이 함께 했으니 죽고 사는 것을 서로 따르겠다고 말하는 영혜빙에게 “비록 지기(知己)의 정(情)이 듯겨우나” 그럴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서로가 지기관계라는 사실을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한 치의 가감도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어지는 낙성의 발언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낙성은 “밧그로 삼강(三綱)의 일흠이 잇

54) 앞의 책, 197-198쪽.

고”라고 하여 방관주와 영혜빙의 부부 존재로서의 사회적 정당성을 강조했고, “안으로 관포(管鮑)의 지음(知音)이 계신이”라고 하여 가족들이 이미 그들의 지기 연대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낙성은 부모의 정체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기밀은 소수자 가족 구성원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낙성이 개개의 소수자적 정체성과 더불어 연대적 기밀을 공유하였고 나아가 소수자 공동체의 성공에 크게 기여한 인물임을 미루어 볼 때 소수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보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낙성은 물론 앞서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던 유랑 역시 사회적 소수자로서 그 집합적 정체성을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

방가 연대에 있어 낙성의 합류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그들이 직접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낙성은 방 씨 부부의 깊은 애정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암묵적 합의로 결정된 후사이기 때문이다. 표면상 낙성이 방관주가 일방적으로 데려온 아이이고 상의 한 마디 없이 사후 통보의 형식으로 맡아 기르게 하는 데도 영 씨 부인은 기이하게 여기며 반길 뿐, 여타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이 이를 뒷받침한다. 기존 연대 구성원인 방관주와 영혜빙, 유랑 세 사람 모두가 다름 아닌 소수자란 사실도 편견과 차별 없이 낙성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요인일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의 “혈연 공동체가 정상과 비정상, 주체와 타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였다면, 비혈연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오히려 그러한 경계를 무너트리며 평등하고 안정되며 연결감이 느껴지는 공간으로 작용”⁵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편견과 차별의 경계를 넘어선 비정상의 소수자들을 정상적 가족의 모습으로 탈바꿈시켜 사회질서의 궤도 선상으로 재진입 시킨 존재가 다름 아닌 낙성이라는 데 그 두 번째 특별함이 있다. 하나의 타자 집단이 각기 ‘다름’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생의 가족

55) 구선정, 앞의 논문, 172쪽.

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라는 미래 지향적 존재의 대체 불가능함이 결정적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낙성의 합류는 방씨 일가에 매우 유의미한 전환점으로 작용하며 연대를 넘어 비정상상의 정상화라는 초월적 메커니즘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방한림전> 소수자 가족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 본 <방한림전> 연대는 여타의 공동체와는 다른 몇 가지 중대한 특징을 지닌다. 가장 먼저, 그들이 “사회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다수자처럼 되기 위한 결함을 극복”하는 데 그 연대 목적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 연대가 우연한 계기들을 통해 형성되었고 그 존재 자체가 비밀스러운 것이었다고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증명하며 서로 소통⁵⁶⁾하는 성장의 장이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위장 감행이나 이탈 욕망 같은 양상들은 처음에 각자의 성향을 분명히 하여 그들을 하나의 공동체 공간 안으로 모여들게 하였을 뿐, 그 자체가 그들의 삶에 궁극적 해결책이 되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 인물들이 집단적 젠더위반(혹은 조장) 행위로 가부장적 체제로의 편입을 피하는 데 급급했다는 오명 역시 정체성의 연대를 통해 오히려 사회로의 적극적 합류를 모색해 나갔다는 설명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이다. 함께하는 삶 속에서 새로운 여정을 이어나가며 자기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었던 조선 후기 한 소수자 집단의 형성과 성장의 긍정적 일면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방한림전>의 연대는 무엇보다 특별하다고 하겠다. 일부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보면, 방관주가 남북개작을 해서라도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는 데에만 급급하였기에 영혜빙보다 못한 평을 받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소수이론의 측면에서 방관주의 소

56) 구선정, 앞의 논문, 170쪽. 참고.

수자 연대를 통한 사회적 실현은 결과적으로 보다 나은 사회적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아우토노미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전략적 젠더위반에서 출발한 동성결연이 구성원들의 평생에 걸친 굳건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의 연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⁵⁷⁾ 엘리자베트 벡 게른스하임(2005)은 “가족 이후에 오는 것은 핵가족의 발달이고 그것의 시간적 진행이며 개별화된 자들의 연합이고 핵가족의 유약화인 동시에 증대”⁵⁸⁾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개인화로 치닫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개인만을 위한 욕망과 또 다른 친밀한 공동체에 대한 동경이 동시에 존재하기에 다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때의 가족은 “역할에만 충실하면서 서로 의존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가족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개체성을 인정하며 존중하고 협력하는”⁵⁹⁾ 새로운 가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족 해체 이후의 최상의 대안 역시 가족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현대의 독자가 <방한림전>의 소수자 가족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동성혼 부부’와 ‘노비’, ‘입양아’로 구성된 <방한림전>의 공

57) <방한림전> 소수자 연대에게 ‘집’이란 그들만의 연대를 통해 개개인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물리적 공간이자 ‘가족’이라는 충만한 삶의 의미를 생산해주는 정신적 공간이었다고 할 것이다. 오카다 미쓰요(2004)는 현대인들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에 “적어도 가족은 행복을 보장해 주는 필요·충분 조건 중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조건”이라고 말한다. - 오카다 미쓰요 지음/ 김재은 옮김, 『새로운 가족』, 도서출판 소화, 2004, 230쪽.

여기에서 ‘집을 잃어버린 사람’의 의미를 시대의 경계를 넘어 생각해보면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누리고 실현할만한 삶의 가장 기본적 토대가 사실상 마련되고 있지 않은 소수자의 소외된 삶과도 상응하는 측면이 있다.

58) 앞의 책, 23쪽.

59) EBS 가족쇼크 제작팀, 『가족쇼크 : 한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월북, 2016, 279쪽.

동체를 본격적으로 하나의 가족으로 보는 견해는 없었다. 그것은 이들의 가족 공동체가 전통적인 가족에 비해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동성애 가정, 입양 가정, 다문화 가정, 재혼 가정 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족’의 의미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미래지향적 가족의 유형을 조선시대의 <방한립전>의 소수자 공동체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다. 유랑은 하루아침에 천애고아가 된 방관주를 자식처럼 보살피며 부모의 역할을 자처하고 방관주 또한 유랑을 부모와 같은 존재로서 대한다. 방 씨 부부는 인류의 지대함을 넘어설 만큼 유일무이한 영혼의 짝이 되어 사생지기(死生知己)로서의 삶을 마치게 된다. 입양아 낙성은 이들의 따뜻한 가족애 속에서 관일지풍(貫日之風)으로 장성하여 아버지에게 필적할 만큼 출장입상(出將入相)한다. 소수자 가족 공동체 안에서는 과거의 그들 개인이 누구였든 얼마나 차별받았든 중요치가 않다. 연대적 삶 속에서 개개인을 실현하고 소통하며 유의미한 성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방한립전>의 가족 공동체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작품 속에서 한계적으로나마 소수자 가족 공동체의 존재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의미하다고 하겠다. 그 첫 번째 근거로 <방한립전>은 타 여성영웅소설에서와 달리 방관주를 기존의 성 정체성으로 되돌려 놓지 않으며, 영혜빙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평생에 걸쳐 방관주에게는 여화위남의 삶을 지속하도록 허락하고 영혜빙에게는 지기와의 삶에서 여타의 갈등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비판적 문제의식을 끝까지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⁶⁰⁾ 방관주 부부가 사후에 사생지기로 한 무덤에 묻힌 것⁶¹⁾도 그들의 관계를 잘 헤아리고 있었던 아들 낙성의 마지막 배려로 보이나 동시에 작가의 소수자적 삶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견지가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할 것이

60) 김정녀, 앞의 논문, 2006, 245-246쪽. 참고.

61) “영 부인(婦人)과 스싱지기(死生知己)로 동혈(同穴) 썩슬이”라고 되어 있다. 앞의 책, 209쪽.

다. 두 번째 근거로 커밍아웃 이후의 평가를 들 수 있다. 방관주가 병상에서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는 물론, 영혜빙과 낙성의 존재까지 사실대로 밝히고 석고대죄(席藁待罪) 하였기에 여기에서의 정체성 고백은 개인적이기 보다 집단적인 성격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천자는 어떠한 징계도 처벌도 없이 “경(卿)은 만고영웅(萬古英雄)이요 열녀절부(烈女節婦)라.”하고 칭찬하며 우선적으로 그의 건강 회복을 바라고 슬퍼한다. 또 천자는 “짐(朕)이 맞당이 저바리지 안아하리라.”⁶²⁾했던 이때의 약속대로 방관주가 별세했다는 소식에 애통해하며 ‘국례(國禮)’와 ‘남장(男裝)’으로 초상을 치르라고 몸소 지시하기까지 한다.⁶³⁾ 다만 천상 화소를 통해 문제의식의 본질을 흐리고 독자에게 용인될 만큼의 결말로 포장했다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후사 잇기를 통한 존속과 번성’도 주목할 만하다. 후사 잇기란 여느 가정에서는 특별할 것 없는 일이지만 <방한림전> 소수자 가족들에게는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소수자적 연대에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후사 잇기를 통해 그들 스스로를 정상궤도선상으로 복귀시키고 있는 것이다. 앞서, <방한림전> 소수자 개개의 모습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해체되어가는 가족 구성원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비정상적이고 비표준적인 소수자들이 함께 거듭나고 성장하여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제도권의 반열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근거에는 바로 가족의 존속과 번성이라는 사회적 통합의 화두가 상당부분 담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가족의 성공은 상호간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공통의 목표에 대하여 각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는 데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특별히 ‘후사

62) 장시광 옮김, 앞의 책, 203쪽.

63) “천주(天子) 상국(相國)의 별세(別世)하물 드르시고 인통즈탄(哀痛嗟歎)하시며 스(四) 일(日)을 육집(肉汁)을 물이치시고 관곽즙물(棺槨什物)을 다 국예(國禮)로 하시고 초동범구(初終凡具)를 다 남장(男裝)으로 하라 하시니” 앞의 책, 208쪽.

잇기를 통한 존속과 번성'은 소수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낙성에게 단연 최고이자 최선의 행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소수자'와 '가족'이라는 핵심 키워드에 입각하여 <방한립전>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전개하였다. 적극적 소수자의 길을 걷는 방관주·영혜빙 부부는 물론, 잠재적 소수자로서의 입양아 낙성과 유모 유랑까지도 주목한 것이다. 결국 이 네 사람 모두가 소수자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묶일 수 있다는 데 착안하였다. 또한, <방한립전>의 공동체는 다분히 가족의 성격을 띤다. 그들 소수자들은 하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점차 안정되고 성장하여 마침내 사회제도적 한계마저 넘어서는 양상을 보인다. 본고는 <방한립전>의 소수자 가족으로부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가족의 유형을 발견하고, 가족 해체 위기에 직면한 오늘 날에 더욱 특별해진 이들 소수자 가족의 의미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나름의 연구 성과로, 기존에 방관주와 영혜빙에 비해 주목받지 못했던 유모와 낙성의 소수자적 면모까지도 논의선상에 올려 이들의 가치를 재조명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유랑은 조선시대의 노비 신분으로서 기존 통념에 의하면 가족 구성원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물이 아닐 수 없다. 본고에서는 구체적 사료(史料)를 통해 가능성을 열고 유모를 '가족'의 담론 안으로 끌어 올 수 있었다. 낙성의 경우에도, 기존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대상이 되지 못했지만 본고에서는 그를 소수자 가족의 중대한 일원으로 보았다. 그 스스로가 이미 동성혼 부부에게서 입양된 자녀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흔들림 없이 성장하여 입신양명(立身揚名)했다는 점과 후사 잇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수자 집단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가능케 한 일등공신이었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본고는 <방한림전>의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찾음으로써 그 소수자 가족에 대한 논의를 시도하였다. 여성의식이나 가부장제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구멍이 쉽지 않았던 <방한림전>의 ‘가문 존속의 문제’ 또한 소수자 집단의 한계 초월의 측면에서 해석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후속 연구에서 잠재적 소수자에 불과했던 유모와 낙성이 소수자 가족 안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나가는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장시광 옮김, 『조선시대 동성혼 이야기 <방한림전>』, 한국학술정보(주), 2006, 90-93쪽.

2. 논문 및 단행본

구선정, 「장애인간 연대를 통한 치유-〈한후룡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167쪽.

김경미,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고전여성문학의 성격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9집, 한국고전문학회, 2006, 47-68쪽.

김경미, 「젠더 위반에 대한 조선사회의 새로운 상상-〈방한림전〉」, 『한국고전연구』 제1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89-216쪽.

김용만, 『朝鮮時代 私奴婢研究』, 서울:집문당, 1997, 60-63쪽.

김정녀, 「〈방한림전〉의 두 여성이 선택한 삶과 작품의 지향」, 『반교어문학』 제21호, 반교어문학회, 2006, 223-252쪽.

김진영 외, 『조선후기 소수자의 삶과 형상』, 2007, 도서출판 보고서 참고.
문숙자, 『68년의 나날들, 조선의 일상사』, 네머북스, 2009, 149쪽.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제31집, 민족문학사연구소, 2004, 186쪽.

아놀드 조셉 토인비 지음/ 김규태·조종상 옮김, 『역사의 연구Ⅱ』, (주)더스타일, 2012, 39-40쪽.

양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조선조 후기소설의 성차별의식 고찰」, 『한국고전연구』 제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8, 109-155쪽.

엘리자베트 벅 게른스하임 지음/ 박은주 옮김,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새물결출판사, 2005, 23-24쪽.

- 오카다 미쓰요 지음/ 김재은 옮김, 『새로운 가족』, 소화, 2004, 230쪽.
- 윤수중 편, 『다르게 사는 사람들』, 이학사, 2002, 11-13쪽.
- 자크 랑시에르 지음/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13-114쪽.
- 장시광, 『한국 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서, 2006, 45쪽.
- 정병현, 「<방한림전>의 비극성과 타자(他者) 인식」, 『고전문학과 교육』 제1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373-399쪽.
- 조혜란, 「<숙녀지기>에 나타난 여성 지기(知己) 형상화의 의미」, 『한국 고전여성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10쪽.
- 한국고전여성문학회, 『한국 고전문학 속의 가족과 여성』, 월인, 2007, 25쪽 참고.
- EBS 가족쇼크 제작팀, 『가족쇼크 : 한집에 산다고 가족일까?』, 월북, 2016, 279쪽.
- Dworkin, A.G. and R.J. Dworkin, *The Minority Report*, CBS College Publishing, 1982, pp.15-19.

3. 기타

- [네이버 지식백과], 신분제도[문화콘텐츠닷컴 (문화원형백과 연오랑 세오녀), 한국콘텐츠진흥원], 2002.

<Abstract>

A study of the minority family structure in the 〈Banghallimjeon〉

Lee, Yu-Ri*

This study is based on the two keywords: 'Minority' and 'Family' in the *Banghallimjeon*. The article first noted that not only Yeonghyebing and Banggwanju can be classified a minority, but also the adoptee Nakseong and the nanny Yurang in spite of their unexposed aspect as a minority.

The *Banghallimjeon* characters form a minority community, which gradually stabilizes and grows the individuals develop characteristics as a minority. This makes it possible for the community to exceed its social norms. The *Banghallimjeon* community has a very close-knit personality and also depicts the shape of a future family. The study is meaningful in discovering a type of new family in this community of minorities where they try to identify the meaning of the minority family in *Banghallimjeon*.

Yurang belongs to a lower rank of the Joseon Dynasty, which is difficult to categorize as a typical family member. This paper opens the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of the nanny through historical data and was able to bring the nanny Yurang into the family discussion.

In the case of Naksseng, the existing research has been referred to

* Yeungnam University

as a secondary figure, but he also viewed it as a member of an important minority family. It is noteworthy that although he had already known the identity of his parents who are a married same sex couple, he has risen steadily and finally succeeded in gaining fame. He can be regarded as the best contributor who was able to overcome the abnormal structure of the minority group. This paper analyzed the problem of “survival of the family” as transcending the limits of the minority family, which was not easy to identify when approaching from feminist or a patriarchal view point.

The success of a single member of the Banghallim community is not only his/her own, but also the successes of the entire minority family. The Banghallim family is unique because it shows the positive aspect of the formation and growth of a minority family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Banghallimgeon* presents a new family comprehend able, get abnormal, family structure to modern people who are facing the crises such as family separation, divorce, death, etc.

Key Words : minority, minority family structure, solidarity, same sex marriage, sex violation, future family.

■ 논문접수 : 2017년 3월 14일

■ 심사완료 : 2017년 4월 14일

■ 게재 확정 : 2017년 4월 16일